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의 반동성

정 광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부를 창조하는것은 인민대중이지만 그것을 향유하는것은 얼마 안되는 착취계급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50페이지)

부르조아《미시경제학》에서 설교하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의 반동성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분배관계의 착취적본질과 반동성을 폭로하고 소득분배의 《공정성》, 《공평성》을 떠드는 부르조아변호론을 반대배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임금로동에 의한 자본의 착취를 합리화하고 잉여가치학설을 반대하며 자본가에 의한 로동계급의 착취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꾸며진 현대부르조아《미시경제학》의 한 조류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신고전학파의 경제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분배리론》을 계승한 《신고전학과분배리론》의 현대적변종이다.

부르조아경제학계에서는 신고전학과경제학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가지로 해석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19세기말의 영국의 제본스와 오스트리아의 왈라스 및 멩가, 20세기의 영국의 마샬 등을 포함한 신고전학파의 경제리론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을 포함한 현대부르조아《미시경제학》모두를 포괄하는데 바로 여기서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주류경제학의 한 조류》로 표현된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경제위기와 침체, 임금인상을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의 강화로 파국적인 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자본주의경제를 독점자본가들의 이익에 맞게 변호하며 현실적으로 더욱더 심각화되는 계급간의 모순을 새로운 《리론》으로 설명한다는데로부터 《신고전학과분배리론》의 기본원리들을 고수하고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여 출현하였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신고전학과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꾸며지고 그후 20세기초에 이르러 영국의 마샬과 미국의 크라크 등에 의하여 널리 보급되였다. 여기서 《기능별소득분배》라는 말은 소득분배는 로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소유를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들사이에서의 분배를 의미하였다.

부르조아《미시경제학》에서 설교하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불공평한 분배관계를 합리화하고 임금로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적착취를 가리우며 자본주의적생산에서 로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외곡한다는데 있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소득창조에 기여하는 《생산적요인》들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설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적요인》들과 그 기능을 부르조아적립장에서 외곡하는것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자본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몫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로동과 자본을 생산함수의 독립변수로 보고 이를 통한 《한계생산성》이라는 피상적인 경제범주를 조작하여 로동과 자본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교한다.

그리고 《한계생산성》은 시장에서 구매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생산함수의 독립변수인 노동과 자본의 량을 각각 같은 기술적단위인 1로 표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본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생산에 기여하는 몫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우위성을 차지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우선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분배관계에서의 자본주의적착취를 가리우고 불공평한 자본주의적분배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분배관계는 철두철미 임금노동자들이 창조한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무상으로 점유하는 착취적인 관계로서 자본가들은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를 자본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창조된 물질적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소득창조에 자본가들이 투자한 자본과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이 참가하며 거기서도 노동에 비하여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기때문에 기능상견지에서 자본이 상대적우위성을 가지게 된다고 떠벌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본가들이 점유하는 리윤이 임금노동자들이 창조한 가치를 무상으로 빼앗은 착취의 산물인 잉여가치라는것을 가리우고 부르쥬아지의 립장에서 불공평한 자본주의적분배관계를 합리화하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또한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자본주의적생산에서 차지하는 요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부르쥬아지의 립장에서 외곡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리론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부르쥬아경제학에서 자본주의적착취를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생산의 3요인설》과 《효용가치설》에 기초하고있다.

19세기의 부르쥬아속류경제학자인 프랑스의 쎄이는 생산에는 《생산의 3요인》으로서 노동, 자본, 토지가 참가하며 이 세 요인에 의하여 생산과정에서 창조되는것은 물질이 아니라 《효용》이며 이 세 요인의 봉사의 결과로 임금, 리윤, 지대를 분배받는다고 설교하였다. 즉 노동의 소유자는 소득으로서 임금을 받고 자본의 소유자는 지대를 분배받는다는데서이다. 결국 자본주의적착취는 없으며 각자는 자기가 투자하는 생산적요인들의 《봉사》의 결과에 따라 응당하게 분배받는다는데서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 설교되는 노동과 자본이 바로 그러한것이다.

고유한 의미에서 생산에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과 생산수단으로서의 노동수단, 노동대상이 참가하며 자본주의적생산에서 그것은 가치창조에서 노는 역할에 따라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자기의 가치를 이전시키기만 하는 불변자본으로 되며 사람의 노동력은 자기의 가치이상을 창조하는 가변자본으로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적생산에서 생산의 요인들은 다같이 자본으로 되며 또 자본으로서 각각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자본으로서의 이 세 요인을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노동력을 노동으로 분리시켰던것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못하는 자본이 그 형태의 다양성과 기술적특성으로 하여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에 비하여 더 큰 기능과 역할을 하기때문에 소득분배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것을 설교한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은 이미 그 비과학성과 반동성이 폭로비판된 《한계생산력설》에 기

초한것으로서 허황한것이다.

《한계생산력설》에 의하면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필요로동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생산에서 최종단위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의 생산물의 가격에 의하여 규정되며 자본의 소득인 리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한계생산력설》의 제창자들은 이렇게 결정된 임금수준과 리윤수준에 의하여 리용되는 전체 노동량과 자본량에 대한 지불은 그 노동량과 자본량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체 생산물의 가치 또는 가격과 같은것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한계생산력설》은 결국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듯이 설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를 가리우기 위한 반동적인 리론이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생산함수를 통하여 《한계생산성》이라는것을 꾸며내고 이 《한계생산성》을 통하여 생산함수의 독립변수인 노동과 자본의 모두가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과 리윤수준이 노동생산물의 최종단위의 가치크기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에 기초를 둔것으로서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이다.

부르쥔아《미시경제학》에서 설교하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분배문제의 사회계급적성격을 무시하고 소득분배에서의 불공평성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것이라는데 있다.

《기능별소득분배리론》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사회적력학관계》보다도 《시장의 힘》에 의거할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설교한다. 여기서 《사회적력학관계》란 사회정치관계, 계급관계, 재산소유관계 등을 통털어 지칭한것이며 《시장의 힘》이란 시장의 가격체계에 의하여 각자의 경제적리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가격의 자연발생성, 불균형성, 독점가격에 의한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군들의 투매행위로 하여 상품의 가격이 큰 격차를 가지고 가치로부터 배리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된다. 자본주의경제를 속이 텅빈 《거품경제》라고 부르는 리유도 바로 이러한 상품가격의 절대적인 격차에 주되는 원인이 있다.

불합리성과 취약성, 불균형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시장에 의하여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설교는 분배령역에서의 착취관계를 가리우고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기 위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표본》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인구의 0.02%에 해당하는 억만장자들이 나라의 총재산의 45%를 독차지하고있으며 인구의 10%도 안되는 부유층이 금융자산총액의 86%를 차지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장의 힘》에 의한 분배의 《공정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설교하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이 완전히 기만적인것이며 부르쥔아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부르쥔아《미시경제리론》에서 설교하는 《기능별소득분배리론》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통하여 자본주의적분배관계의 착취적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아야 할것이다.